

# 기본소득, 노동과 화폐에 대한

## 새로운 상상력

⋮

고미숙 고전평론가

나는 ‘본투비 백수’다. 30대 중반에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교수진출이 봉쇄되면서 ‘박사실업자’로 중년을 통과했다. 혼자 공부하기 심심하여 수유연구실이라는 지식인공동체를 열었고, 현재는 ‘감이 당&남산강학원’을 거점삼아 삶의 모든 것 - 공부와 밥과 우정 - 을 해결하고 있다. 헤아려 보니 장장 20여년, 꽤나 긴 시간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란 존재가 자본의 격렬한 현장은 고사하고 정규직 경력도 전무하다는 뜻이다. 그런 내가 기본소득에 대한 원고청탁을 받았다. 신기했다. 인문칼럼도 아니고, 고전평론도 아니고, 기본소득이라니. 아, 그러고 보니 돈에 대한 책을 쓰기는 했다(『돈의 달인, 호모 코뮤니타스』, 『바보야, 문제는 돈이 아니라니까』,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허나 그건 어디까지나 인문학적 관점에서 돈과 삶의 문제를 다룬 것이라 자본과 복지의 ‘리얼한’ 현상과는 거리가 좀 있다.

아무튼 그럼에도 내가 이 청탁을 수락한 이유는 간단하다. 이 사실 자체가 재밌어서다. ‘글쓰기가 밥벌이’요, ‘백수가 미래’라고 외치는 나한테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라니. 놀라운 세상이다. 이거야말로 문명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 그런 시대전환을 이끌어낸 주역은 다름아닌 코로나 19다.

기본소득,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 곁으로!

지난 1년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통과해왔다. 이 터널이 언제, 어떻게 끝나게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 경로를 예의주시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들이다. 미증유의 사건은 미증유의 사유를 몰고 온다. 기후위기와 생명주권, 자연과의 공생, 탄소에서 수소로, 소유에서 자유로 등이 대표적인 사안일 터, 기본소득 역시 거기에 포함된다. 내 기억으론 2020년 이전에도 기본소득에 대한 풍문이 떠돌긴 했다. 하지만 너무 아련했다. 북유럽같은 먼나라의 전설이라고나 할까. 그러다 코로나19가 왔다. 바이러스를 통한 자연의 역습은 전방위적이었다. 인간도 자본도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핵무기고 4차혁명이고 그 앞에선 무력하기만 했다. 성별, 인종, 국가, 문명 사이의 격차도 무색해졌다. 모든 가치가 뒤집히는 와중에 문득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주어졌다. 앗, 이게 가능해? 가능했다! 이제 더 이상 기본소득은 ‘풍문’도 ‘전설’도 아니다. 동의하건 하지 않건 누구나 숙고

해봐야 할 경제상식이 되었다. 그렇게 기본소득은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기본소득,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소득.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경제적 권리. 이게 맞나? 아무튼 나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경쟁과 격차, 사적 소유, 증식과 팽창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원리와는 여러 모로 충돌한다. 따라서 그 실현 가능성 여부는 궁극적으로 인식의 전환에 달려 있다. 특히 노동과 화폐를 둘러싼 배치, 쉽게 말하면, 돈과 삶에 대한 상상력의 전복이 필요하다.

### 노동에서 활동으로!

먼저 노동에 대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동의 신성함이 라는 테제일 것이다. 노동은 신성하다, 노동자가 역사를 이끌어간다, 노동해방의 그날을 위하여 등등. 1980년대 민주화세대의 깃발을 장식한 구호다. 물론 그 이전에 산업혁명과 함께 노동은 인간존재의 핵심이 되었다. 산다는 건 노동을 하는 것이고, 그에 걸맞는 임금을 받는 것이다. 노동과 임금 사이의 간극, 문제는 거기에 있을 뿐 노동 자체의 가치는 신성불가침이었다. 이런 인식과 태도가 수세기 동안 전 인류를 노동을 향해 달려가도록 추동했고, 그 결과 전세계의 부는 엄청나게 폭발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계급투쟁과 양차대전, 냉전의 세기를 초래하였고, 그러는 와중에 자연은 초토화되었다. (우리는 현재 그 ‘업보’를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노동에 대한 인간의 믿음은 굳건하기만 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서면서 노동의 배치가 전면적으로 바뀌어 버렸다. 20세기까지만 해도 디지털 문명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지게 될 거라곤 역시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어디 그뿐인가. 인간보다 더 유능하고 효율적인 기계들이 노동을 전방위적으로 대체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 이것은 노동해방인가? 아닌가? 비슷하긴 한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말하자면, ‘노동자가 해방된’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되는 세상이 도래한 것. 따라서 노동을 통한 인간성의 구현이라는 테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럼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일단 사태의 추이를 좀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노동과 놀이의 경계마저 사라지고 있다. 예컨대,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직업이 있다면 그건 아이들과 스포츠 선수일 것이다. 춤과 노래, 야구와 축구, 이것은 노동인가? 취미활동인가?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천문학적 수준이다.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데, 왜 이렇게나 많은 돈을 지불하지? 보통사람이 맨날 야구나 축구를 하면 ‘건달’로 취급될 것이다. 그런데 그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한다. 그 가치의 원천은 대체 무엇일까? 상품생산? 교역의 확장? 자유와 평화? 다 아니다. 그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즐거움을 줄 뿐이다. 유튜브의 예능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대부분은 잡담, 먹방, 개인기 등이다. 놀랍게도 4050 중년들이 나와서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게임을 한다. 목지빠, 노래 맞히기, 끝말잇기, 줄다리기 등등. 예술적 가치를 생산하는 것도, 계몽적 효과를 촉발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을 때우면서 휴식을 취하게 해줄 뿐이다. 그럼 그 가치를 생산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다수의 대중들이다. 여기저기 클릭하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고 하는 것만으로 엄청난

부가 창출되는 시대가 된 것.

그렇다. 보다시피 이전 상품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졌다. 사람들의 감정과 마음이 연결되면 그 자체만으로 자본이 증식된다. 그래서인가. 디지털 기술로 부를 이룬 ceo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라, 고. 거창한 명분이나 대단한 발명이 아니라 그저 좋아하는 것(혹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하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일단 좋아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른다. 또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지를 여전히 의심한다. 왜?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모름지기 죽도록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지 않나? 라는 통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전 정말 스스로에게 물어볼 일이다. 오직 노동에 종사하다 생을 마치는 게 거룩한가? 매일같이 직장을 출퇴근하면서 남이 시키는 일을 ‘열나게’ 하는 삶이 그렇게 대단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은 거의 없으리라. 밀레니얼 세대라면 더더욱. 그럼에도 방향을 돌리지를 못한다. 왜? 당연히 생활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 그 이전에 노동 대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가 포인트다. 이제 인간의 행위는 노동이 아닌 활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노동은 그 자체로 타율적이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임금을 받아도 그것이 주는 소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에 반해 활동은 자율성과 능동성을 전제로 한다. 당연히 소외에서 벗어나 있다.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고? 차고도 넘친다. 일단 잘 놀고 잘 쉬는 것(현대인은 휴식과 수면에 무능력하다. 만병의 근원이자 불통의 원천이다. 그로 인해 치러야 할 경제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 다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감을 확대하는 네트워크를 여는 것. 그동안 인류가 노동에 올인하느라 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메시지에 담긴 다양한 분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기본소득은 바로 그런 활동의 경제적 베이스가 될 것이다. 노동에서 활동으로!

돈을 흐르게 하라!

다음 화폐에 대하여. 노동의 신성함 다음으로 현대인들이 신봉하는 관념이 하나 있다. 사적 소유의 신성불가침이 그것이다. 현대인은 돈을 벌기 위해 평생을 다 바친다. 그게 성공의 척도이자 생의 유일한 낙이다. 그럼 그렇게 소유하고 증식한 다음에는? 소비와 여가. 결국 오락과 즐거움이 최종심급이다. 소비는 쾌락중추를 자극한다. 이 신경은 적당히 멈출 줄을 모른다. 결국 중독을 부른다. 평생 사유재산을 늘리는 데 올인했지만 결과적으로 삶의 질은 엉망이 된다. 국가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GDP를 높이고,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고. 그 다음엔? 더 큰 아파트, 더 많은 주식, 더 많은 소비를 향해 나아간다. 공감과 연대, 우정과 지성 같은 정신적 가치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이 없다. 오직 증식과 소비뿐. 이런 경로를 타게 되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부자는 중독으로, 중산층은 공허함으로, 하층민은 박탈감으로.

이런 ‘서글픈’ 배치를 바꾸려면 부의 기준을 화폐의 양에서 삶의 질로 전환해야 한다. 삶의 질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다양한 척도가 있겠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협소한 자아에서 벗어나 존재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 이를테면, 소유에서 자유로. 고립에서 공감으로, 물질에서 정신으로! 예전에는 그것을 주로 사유재산에 의존해서 구현할 수밖에 없었다. 공적 자산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다르다. 공유경제가 흘러넘친다. 내가 거주하는 필동만 해도 주변에 남산순환로, 한옥마을, 국립극장 등 산책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덕분에 우리 공동체의 백수들은 하루 두 번씩 사계절의 풍광을 만끽하고 있다. 이것은 부의 향유인가? 아닌가?

전국 곳곳을 다녀보면 이런 식의 공적 자산이 차고 넘친다. 문제는 이 자산들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지 않은 탓이다. 따라서 이제 필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시설을 연결하는 다양한 플랫폼이다. 그러기 위해선 사람들이 움직여야 한다. 자기만의 방에서 광장으로, 가족에서 공동체로. 직장에서 마을로. 공간은 공원, 도서관, 박물관 등을 적극 활용하면 된다. 거기에서 뭘 하냐고? 각종 여가활동, 북클럽 혹은 환경동아리, 여행과 순례, 인생의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학습 등등. 이걸 결코 낭비가 아니다. 사회적 소통이 활발해지고 세대공감이 확대되고.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최고의 비전 아닌가. 화폐와 자본은 그 자체로 아무 것도 낳지 못한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 될 때라야 비로소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백수들, 특히 청년들에게 경제적 베이스를 마련해주는 건 그야말로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사안이다. 기본소득이 절실하게 요구 되는 이유다.

그러면 당장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이다. 세금을 놓고먹는 백수들한테 쓴다고? 혈세 낭비! 하지만 자본주의는 본래 탕진과 낭비를 기본으로 한다. 전국 곳곳에 세워진 온갖 럭셔리한 시설과 조형물들을 떠올려 보라. 일년에 한두 번의 쇼와 이벤트 외에는 텅텅 비어 있다. 대형토목공사가 초래한 자연파괴, 거기에 쏟아붓는 천문학적 비용은 또 어떤가. 아, 코로나가 알려준 또 하나의 진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지고 큰 공간은 대학캠퍼스일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그 웅장한 건물과 대지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보다 더 큰 혈세 낭비가 또 있는가?

사유재산만 해도 그렇다. 그렇게 소유에 집착한 다음, 결국 나중에는 자식한테 물려준다. 그러다 보니 자식은 부모의 재산을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 여긴다. 그런 부조리한 통념에서 오는 범죄와 병증, 그로 인해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또 얼마나 큰가. 돈을 사적 소유와 핵가족의 범주 안에 묶어두는 한 이런 식의 탕진과 낭비는 끝도 없이 되풀이될 것이다.

요컨대, 돈은 흘러야 한다. 사적 소유의 신성함이라는 가치에 매여있는 한 돈은 오직 개인적 욕망, 그리고 핵가족의 틀 안에서만 돈다. 돈이 그렇게 ‘홈파인’ 회로에서 돌면 사람도 돌아버린다(진담이다 ^^). 그래서 도는 게 아니라 흘러야 한다.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 삶과 삶이 연결되는 곳으로. 그것을 일러 순환이라고 한다. 순환에는 시초적 증여가 필요하다. 지구에 생명이 살기 위해선 태양과 빛과 열이 필요한 것처럼. 태양과 빛과 열은 무상으로 주어진다. 그렇다면 인간 또한 그 ‘조건 없는’ 증여에 응답해야 하지 않을까. 무상의 순환을 통해서.

GDP가 부의 척도가 되는 시대는 지났다. 나라가 부자가 된다고 구성원들이 잘 살게 되는가? 격차가 커지면 사회적 스트레스와 갈등지수는 더더욱 높아질 뿐이다. 그렇다고 빈부격차 없이 모두를 잘 살게 해주는게 가능한가? 부의 총량을 늘여서 고루 나눠준다는 발상은 이제 그만! 가능하지도 않지만, 가능하다 해도 사양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구가 초토화될 테니까. 지금의 부로도 충분하다. 그저 잘 흐르도록 유도하면 된다.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물론이고 부자들의 자발적 증여도 훨씬 확대되어야 한다. 부자는 증여하는 기쁨을 누려서 좋고, 가난한 이들은 삶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어 좋고. 정규직은 든든

지금의 부로도 충분하다. 그저 잘 흐르도록 유도하면 된다.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물론이고 부자들의 자발적 증여도 훨씬 확대되어야 한다.

부자는 증여하는 기쁨을 누려서 좋고, 가난한 이들은 삶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어서 좋고.

정규직은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좋고, 백수는 자존감과 여유를 누릴 수 있어서 좋고.

그 자유의 공간에서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가치들이 생성될 것이다.

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좋고, 백수는 자존감과 여유를 누릴 수 있어서 좋고. 그 자유의 공간에서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가치들이 생성될 것이다.

### 감이당의 ‘기본소득?’, 청년펀드

너무 낭만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이런 경제적 순환을 실험해왔다. 나의 현장은 감이당&남산강학원이다. 여기서의 기준은 계층이 아니라 세대다. 감이당은 중년세대가, 남산강학원은 청년세대가 주도한다. 중년은 노동과 화폐에 올인하느라 정신적 공황을 겪다가 감이당으로 흘러오고, 청년은 밀레니얼 세대의 막막함을 안고 남산강학원으로 진입한다. 중년은 상당한 부를 갖추고 있지만, 청년은 당연히 빈털터리다. 물론 청년들의 부모는 중산층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게 청년한테는 별 의미가 없다. 오히려 자립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이 세대차이를 적극 활용하여 돈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 것이 감이당의 ‘청년펀드’다. 주로 중년들을 통해 펀드의 기본자산을 조성하고, 그걸 밑천으로 청년들의 각종 활동을 지원한다. 활동은 주로 공동체의 살림살이(주방), 영상편집(유튜브 강감찬tv), 강의녹취 및 세미나매니저 등 배움과 공감의 네트워크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전에는 자원봉사로 하다가 몇 년 전부터 경제활동으로 전환했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서다. 청년들은 주로 남산 아래 필동의 세어하우스에 거주하는데, 한달 생활비는 대략 80만원 정도(인원은 해마다 다르지만 대략 10명-20명 정도). 그게 보장될 수 있도록 청년펀드가 흘러간다. 물론 이 활동은 어떤 이윤도 창출하지 못한다. 그저 흘러갈 뿐이다. 하지만 대신 청년과 중년이 ‘인생의 길벗’이 되는 새로운 공간이 열린다. 이름하여 청&장 크로스! 이 걸 화폐의 양으로 표현하면 얼마가 될까? 단언컨대, 그걸 표현할 수 있는 화폐의 양 따위는 없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대체적 구상이다.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활동에 돈이 흐르게 하는 것. 핵심은 생활의 자립과 공감의 확대.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 일은 이제 그만! 죽어라고 돈만 버는 일도 이제 그만!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 타자와 연결되면서 삶의 지도를 그려가는 길, 돈은 마땅히 이 경로로 흘러가야 한다. 기본소득이 보편화된다면 문명의 흐름 또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무척 기대된다!^^